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창세기 37:23-28; 로마서 10:9-10; 마태복음서 14:22-33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닥쳐온 거센 풍랑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배에서 갑자기 만난 거센 풍랑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의 특징은 예상할 수 없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부가 포함된 제자들이었지만 그 배를 탈 때 거센 풍랑이 닥쳐오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배를 탈 때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이 거센 풍랑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이고, 배는 우리 인생이고, 풍랑은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풍랑을 예측하지 못하듯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예측 불가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닥친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칩니다. 신앙인이라고 거센 풍랑에서 자유로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센 풍랑을 어쩌다 만났느냐 혹은 왜 거센 풍랑을 만나야 하느냐가 아니라, 갑자기 닥친 거센 풍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풍랑은 참된 신앙을 구별하게 해주는 잣대입니다. 풍랑을 만난 신앙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풍랑이 없을 때,

즉 인생이 편안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 믿음의 상태가 정나라하듯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는지 대충 믿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해온 참된 신앙인이라면 인생에 거센 풍랑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고민하고 걱정은 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참 신앙인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기요, 세상이 아니기에, 세상에서 닥쳐오는 거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의 큰 스케일에 압도될 수는 있겠지만 거센 풍랑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풍랑이 닥칠 때나 인생이 편안할 때나 항상 그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풍랑이 그 참 믿음의 삶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매우 잘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으나 정작 거센 풍랑이 닥쳐오니 전혀 그렇지 못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최고조로 올라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의 믿음은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자 최고조에 올랐던 그들의 믿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조차 거센 풍랑이 일자 그 풍랑 자체에만 몰입하여 방금 전까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간구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내려 애썼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드라마틱하게 예수께서 등장 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못지않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태연히 걸어오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하고 유령이라며 두려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유령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던 예수 이심을 분간하게 된 순간 그들의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신 시나리오 상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곧바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시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 거센 풍랑이 갑자기 제자들의 배에 들이 닥쳤고, 예수께서는 이를 아시고 유유히 거센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세상의 다른 풍랑이 닥쳐올 때면 곧바로 그 믿음이 없어질 것을 예수께서 예상하신 것이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짜여진 참된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할 점은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올 때 이처럼 예수께서 먼저 나서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때그때 일깨워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믿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지 제자 훈련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일깨움을 바로바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제자 훈련의 이야기를 교훈삼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만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닥쳐올 때, 풍랑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지식이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거센 풍랑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왔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닥쳐온 풍랑이기에 코로나19라는 풍랑은 우리 믿음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잣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

면하면서 여러분의 심정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과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면, 실례지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믿음은 그리 강하지 못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은 그동안 제대로 쌓아온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인생에 거센 풍랑을 마주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우 당연한 논리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인생의 당연한 논리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논리를 당연하지 않게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평안하든지 풍랑을 만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9-10절)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과 함께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참된 신앙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말은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를 고백하고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거센 풍랑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생에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부디 우리가 각자 마주하게 되는 어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까지 해내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 동 환(2020. 8. 9.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